10.15686/fkl.2020..51.199

해방기 여성대중의 부상과 여성봉기의 재현

류진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1 들어가며: 해방의 교차로에서
2 광장과 거리의 여성들-민족/국가의 여성대중들
3 탈/식민 여성봉기 서사의 불/가능성
4 나가며

이 글은 한국현대문학회에서 주최한 〈제3시대의 '정동': 탈-전형의 미학과 내부의 메타언어〉 학술대회(2019년 8월 24일)에서 발표된 초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의를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신 토론자분과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미처 해명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고를 달리한 논의에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기 광장과 거리의 대중정치 장에서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등장했음을 말한다. 동시에 이같은 여성봉기가 여성작가에 의해서 잘 재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 간극을 사유하기 위해 우선 해방의 소용돌이에서 여성이 단체로 집결하는 운동의 순간을 최대한 재구했다. 다음으로 이 기록들을 당대의 관련 서사와 교차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때 오히려 탈식민 민족/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여성대중이 내세워지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말해지지 않기도 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해방기 대중운동의 앙등기에서 여성대중의 봉기는 좌우남북의 급박한 정세를 반영했다. 좌우 여성들의 차이가 폭발적으로 가시화하는 동시에, 이들이 연대한 공창제폐지운동의 맥락에서 기생들의 파업은 거의 주목되지 못했다. 또한 우파 여성이 승기를 쥔 이후, 여성들의 쌀배급 데모는 종종 사회주의자들의 시위로 진압됐다. 해방의 기운을 드러내고자 하는 좌파적 입장에서 여성봉기는 군집적으로만 재현됐고, 탈/식민 문학 장에서 여성작가들은 당대 여성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서사화할 수 없었다. 이는 탈/식민 대중을 둘러싼 속성, 즉 변혁의 원천이자 잠재적 혼란 사이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문핵심어: 해방기, 여성대중, 여성서사, 봉기, 미군정기, 광장, 거리

1 들어가며: 해방의 교차로에서

‘봉기(uprising)’의 대중적 형상은 주로 남성들로 이뤄졌다. 하층계급 남성들이 결정적 순간에 역사적 주체로 부상하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초점화된다. 이 남성들 사이에 입지를 가진 여성은 특출난 일 개인일 뿐, 대부분의 여성들은 봉기의 알리바이나 혁명의 수혜자로 존재한다. 혹은 특정 장면에서 불꽃같은 저격수 혹은 우연찮은 메신저로 홀로 움직인다.[1] 여성들이 봉기의 행위자로서 인상적인 스

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마무리된 ‘촛불혁명’ 이후, 「1987」(2017)을 비롯하여 문재인

펙터클을 이루며 등장하는 장면은 희소하다. 혹은 여성들이 역사적 장면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도 이는 스스로의 주장이 아닌 군집의 양태로만 주목된다. 집단적인 여성의 정치적 재현은 주로 피해자로 드러나는데, 이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사후적으로 조망되는 제국/식민지의 죽음정치(necropolitics)라는 맥락에서 찾아졌다.[2]

그러나 해방기에 여성대중은 탈/식민의 독립과 건국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족/국가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여성들 역시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적 주체가 될 수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1946년 1월 1일, 해방 후 첫 새해벽두에『자유신문』한 면을 오롯이 채운 안미생과 고명자의 대담을 언급하자. 안미생은 안중근의 아우인 안정근의 딸이면서 김구의 자부(子婦)로 눈길을 끌었다. 고명자는 조선공산당 여성 트로이카 중 한명으로 경성 여성청년 운동의 기수로 유명했다. 이들은 차이와 평등이라는 대립된 논리를 현시한다. 먼저 안미생은 남녀가 평등하게 활동한다는 중국의 예를 들며 여성운동을 별개로 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고, 이에 대해 고명자는 여성의 해방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될 뿐이라고 했다.

얼핏 반대로 보이는 두 사람의 의견이었지만, 해방기 여성들은 한 몸으로 이 딜레마를 겪어내야만 했다. 이러한 곤란은 8.15 이후 최초라고 할 만한 여성 투탑 대담에서 고명자가 모순적 의견을 재차 제시하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우선 그는 국내파 좌파운동가로서 국외파 망명명망인 안미생에게 시종일관 발언권을 양보한다. 그러나 다음의 긴 발언은 정치적 여성의 집단적 계보를 나름으로 구체화

정권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다룬 영화가 양산됐다. 이 대중서사의 젠더에 대한 간단한 논의는 류진희,「'메신저'와 '저격수' 너머 혁명하는 여성의 자리」,『참여사회』제261호, 참여연대, 2018.12, 34-35쪽. 더불어 '촛불혁명기' 내셔널시네마에서 드러난, 그 남성중심적 건국신화의 성 정치학에 대해서는 손희정,「촛불혁명의 브로맨스—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민족문학사연구』제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12, 521-548쪽.

2 푸코의 생명정치를 보충하는 음벰베(Achille Mbembe)의 죽음정치와 관련해, 식민지 여성에 대한 집합적 신체(collective body)로서의 처분과 그 재현을 논의한 글은 이혜령,「그녀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반교어문연구』제47호, 반교어문학회, 2017.12, 247-284쪽.

한 것이어서 경청을 요한다.[3]

> “제가 보기에 지금 국내의 여성운동은 (…) 애국부인회와 여자국민당과 건국부녀동맹의 세단체라고 봅니다. 이 세 단체 중에서 애국부인회는 가장 역사가 제일 오랜 것인데, 기미년 만세운동 때에 여성운동의 유일한 모체로 결성되었다가, 일본정치의 탄압으로 해산되면서 정치정세의 변전에 따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파로 나뉘어서 지하운동을 해오다가, 그후 다시 광범한 민족통일 전선의 결성의 필요로 근우회로 통일되었다가, 이 역시 탄압으로 해산된 후 지하적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한 줄기인 민족주의 색채의 조직이 이번 해방 이후 다시 애국부인회로 나오게 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이 결합해서 나온 것이 건국부녀동맹입니다. 그리고 임영신씨가 통솔하고 있는 것이 여자국민당입니다.”[4] (밑줄은 인용자)

정리하자면 고명자는 해방기 부녀단체의 연원이 되는 식민지 여성운동의 전사를 크게 민족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변한다. “민중의 진정한 요구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으로서만 통일”된다는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 단계에 스스로를 놓았던 당대 3·8선 이남 좌파여성들의 기본 입장에 속해있다. 이는 식민지 체제에서 합법과 비합법이라는 존재기반을 기준으로, 조선의 여성운동 단체를 기독교와 사회주의 계열로 양분했던 것과 상이하다. 해방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모든 분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 안미생은 다시 “여성운동이 이렇게 갈릴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이에 고명자는 여성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덮어놓고 합치자는 것은 틀린 소리”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

3 고명자에 대해서는 이성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고명자의 생애와 활동」, 『인문학연구』 제84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247-274쪽; 이임하, 『조선의 페미니스트』, 철수와 영희, 2019, 179-214쪽 참조. 안미생에 대한 단독 연구는 아직 찾아지지 않는다.

4 「안미생, 고명자 정담, 건국도상 중대한 과제인 천오백만 여성의 나갈 길」, 『자유신문』, 1946.1.1.

요컨대 여성들이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에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는 고명자의 첫 번째 발언은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주장을 가정한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은 이와 반대로 제시되는 것이다. 즉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불순불자들이 버젓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활동하는 실정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도 불구하고 좌우남북 이데올로기에도 주목해야한다는 시각이다. 사실 고명자의 입장처럼, 하나여야 한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언제나 통일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가 솔직히 밝혔듯, 당시 여성단체는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기가 가속화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해방기 여성들은 젠더화된 존재로서 남성과의 차이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자신을 어디에 둘지, 또 이를 다른 여성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지 거듭 고민했다. 해방기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지만, 이렇듯 여성대중을 둘러싼 당대의 모순을 정치적 상황과 함께 서사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5] 이 글은 다시 1945년과 1950년 사이로 돌아가서 여성대중이 어떻게 부상하는지, 그럼에도 여성봉기를 다룬 서사들은 왜 불/가능해졌는지를 더불어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행위성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당대에 명멸했던 각기 다른 여성들을 짐작해보려는 것이다.

2 광장과 거리의 여성들-민족/국가의 여성대중들

해방 후 일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지만, 우후죽순 여성단체들이 등장했다. 건국부녀동맹(1945.8.16. 이후 조선부녀총동맹 개칭. 이후 부총), 여자국민당

5 해방기 여성 재현을 개별 작가와 작품을 통해 비판적으로 논의한 연구의 예로는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4, 64-90쪽; 김주리, 「해방기의 변화와 여성 교양인의 운명—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169-195쪽; 박지영, 「여성 혁명가의 귀환, 그 이후—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상과 가족서사」,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12, 181-223쪽;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 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6, 267-292쪽 등.

(1945.8.18), 애국부인회와 여권실천운동자클럽(1945.9.10), 여자청년동맹(1945.11.10) 등이 맹렬히 활동했다.[6] 전무후무한 여성들만의 당, 각종 여성들의 이름을 내건 결사와 집회는 대대적인 여성대중을 가시화했다. 해방직후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이 주축이 된 행사들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우파의 '지능계발 자아향상'과 좌파의 '여성해방 차별철폐' 사이, 여성들의 다종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7]

특히 12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무려 194개 단체, 대의원 500여명이 참여했고, 수천 명이 참집했다는 전국부녀총동맹 결성대회는 전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안미생과 고명자의 대담이 『자유신문』의 단독기획이었던 것과 달리, 이 전대미문의 대중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은 모든 언론에서 일어났다. 풍문여고 대강당에 수천 명이 모였다는 보도는 연단 위아래로 빽빽이 들어찬 여성들을 부감하는 사진들과 더불어 자세하게 전달됐다. 보도된 식순을 보면, 위원장 유영준이 개회사, 안미생이 축사를 했고, 이순금이 국내정세, 박진홍이 국제정세를 보고했다고 한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정식 정부가 세워지려는 순간, 여성들 역시도 근대적 민주주의 민족/국가의 구성요소로 자신의 지분을 열렬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8]

---

6 해방기의 정치적 상황과 여성운동의 전개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1988, 32-136쪽;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1991, 58-129쪽; 양동숙, 「해방 후 우익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연구(1945~50)」,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0, 24-164쪽.

7 조선여자국민당이 먼저 "조선여성은 자질을 향상하여 (…) 민족국가건설에 초석이 되려한다"고 천명한 후, 한국애국부인회 역시 "지능을 계발하여 자아향상을 기함"을 그 강령의 첫 번째로 꼽았다. 부녀동맹의 경우는 "조선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기함"을 가장 첫 번째 강령으로 제시했다. 「한국애국부인회가 결성」, 『매일신보』, 1945.9.13; 「조선여자국민당 결성」, 『매일신보』, 1945.9.14; 「1945년 9월 14일 건국부녀동맹 결성식」, 최영희 편, 『격동의 해방3년』,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8, 32쪽.

8 연안에서 도보로 환국했다는, 무정 장군의 직속 지도권을 가지고 휘하 2천명을 거느렸다는 '여장군' 김명시가 눈길을 끌었다. 그의 연설은 길게 인용되어 언론에 여러번 게재됐는데, 흥미롭게 여기에서도 여성을 둘러싼 모순이 엿보인다. 자신이 "실제로 총칼을 들고 머리를 깍고 남자들과 함께 제 1선에서 왜놈들을 상대로 맞서 싸웠다"면서도, "여자는 여자다운 입

그런데 1946년으로 접어들면, 여성단체들이 신탁통치 정국에서 좌우남북 어디에 스스로를 위치시킬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 안미생과 고명자의 인터뷰가 전해진 날, 약 1500만 여성의 '순국의 심혼'을 내세우며 반탁을 결의하는 부녀대회가 휘문소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활란의 사회로 이뤄졌는데, 이때 전민족의 결합으로 탁치가 배격될 것이라는 이승만의 격려문이 낭독되기도 했다. 이는 탁치를 결정한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부총의 발언과 날카롭게 대립하며, 우파여성들의 결집을 촉구하는 것에 다름없다. 바로 독립촉성부인단(1946.1.9. 이후 애국부인회와 독립촉성애국부인회로 연합, 이후 독촉)에 이어 전국여성단체총연맹(1946.11.15)이 등장할 의미심장한 징후였다.

이제 여성들의 대립은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광장은 이들에 의해 따로 점령되곤 했다. 고명자가 말한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정치적 격변에서 도드라진 것인데, 분명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좌우의 다름은 여성으로서 남성에 대비해 가지는 차별적 지위의 같음을 상회하기도 했다. 사실 부총의 결성대회와 관련해서, 조선여자국민당과 한국애국부인 세 단체가 합의되어 소집하는 것처럼 전파됐지만, 두 단체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성명이 이미 보도됐다. 매한가지로 우파여성들이 최초로 집결한 이날 역시도 "모 부녀단체로부터 결의문에 대한 항의가 있어 아연 장내는 소란을 일으켜 잠깐 분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소동은 임시정부와 연합국을 향한 개최측의 발언때문이랬는데, 분명 이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대립과 연동한 것이었다.[9]

이미 해방직후에 비해 우파측 여성들의 약진이 가시화되는 중이었다. 이 대회는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었던 좌파 쪽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진영을 정비하고 나선 여성들의 무대가 됐다. 황신덕은 "나약하고 비장력이 약한 우리 여성일지라도,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여성의 한 삶으로서보다도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박순천은 "나라도 찾지 못하고 사상운동은 무엇이고, 계급투

장에 서라는 의무가 더욱 과중"하다고 했던 것이다. 「부총결성대회석상 김명시 여사 절규」, 『조선일보』, 1945.12.25; 「독립동맹은 임정과 협조, 조선의 '짠타크' 현대의 부낭(夫娘)인 연안서 온 김명시 녀장군 담(談)」, 『동아일보』, 1945.12.23.

9 「양 여성단체 성명, 대회모집에 무관계」, 『동아일보』, 1945.12.19; 「託反에 여성들 燧火, 순국의 心魂을 기우린 여자대회」, 『조선일보』, 1946.1.2.

쟁은 무엇일까보냐. 우리는 먼저 나라 있는 백성이 되자"고 절규했다. 혹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수천의 여성들이 광화문통에 집결해서 시위를 열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다. 기묘한 활기가 반탁정국 내내 떠돌았고, '이부종사(二夫從事)는 할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표현조차 기꺼이 활용됐다.[10]

그리고 곧 2월, 미군정 하의 좌파로서 부녀동맹 간부들이 돌연 인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11] 이러한 분기와 역전에도 불구하고 공창폐지결의는 좌우연합이 마지막까지 견지됐던 이슈였다. 모두에서 말했듯 이는 근대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 모두에서 여성대중이 반드시 선취돼야할 조건적 양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공창제폐지운동에서 처음에는 부총이 주도권을 가졌고, 이후로는 우파측이 미군정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당대 대중운동을 이끌던 좌우 여성단체가 총집결했음에도, 여기에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만의 봉기라고 할 수 있는 기생들의 파업은 부정됐던 것이다.

이미 해방의 건전한 풍기를 운운하며 가무를 할 줄 아는 이에게만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기생시험이 치러졌다. 그리고 고급향락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유흥장 등은 벌써 1/3로 감축됐던 시점이었다. 여기에 더해 매월 한번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한다는 통고가 내려지자, 삼화, 한성, 서울, 한강 4대 권번 800명 기생이 총파업을 결의했던 것이다.[12] 그러나 이때의 여성대중, 즉 민족/국가의 국민으로 포섭되어야할 집단에서 이들 기생들은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소멸되어야 할 존재로 지목됐다. 그리하여 이들의 봉기는 어디까지나 문명 이전 자연상태의 무질서로 지목되고, 기생들의 목소리에는 건국을 목전에 두고 개별적인 욕구을

10 「舌鋒으로 탁치반대, 심규에서 절규한 독립전취성 작일 부녀시국 강연 성황」, 『동아일보』, 1946.1.18; 「독립촉성부인회, 군정청앞에서 반탁시위 전개」, 『조선일보』, 1946.1.19; 「寒天하 부인들 반탁시위」, 『자유신문』, 1946.1.19.

11 「부녀동맹 간부 다수 인치」, 『자유신문』, 1946.2.5.

12 「서울의 기생, 여급에 대한 검진제도 실시」, 『동아일보』, 1946.3.18; 「서울 기생조합, 매달 1번씩 신체검사 실시 통고에 거부 결의」, 『조선일보』, 1946.3.19; 「우리들을 음독하는 것이오 8백 기생들 신체검사 실시에 항의」, 『조선일보』, 1946.3.19.

내세울 뿐이라고 귀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하나로서의 여성대중에 대한 주장은 여럿의 여성봉기들 사이에서 비로소 감각되는 것이다. 여성이 하나여야 한다는 당위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세워지는데, 우회해서 대중에 대한 정치철학적 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홉스는 자연상태의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이 이성에 의해 욕망을 따르는 무질서한 대중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실재성을 지닌 사회계약적 존재로 진입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스피노자는 계약 이전의 존재로 대중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이 완전히 반정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이후에도 폭력과 죽음을 불러오는 적대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인데, 이때 대중은 계속적으로 사회에 출몰하면서 그 자체로 현존하는 정치적 실재가 된다.[13]

이에 따르자면 여성대중들 역시도 변혁의 원천이면서, 여성봉기가 분출될 때 그 잠재적 역량 때문에 백안시된다. 개별적 여성대중들 중 하나만이 대표성을 획득할 때, 다른 여성봉기는 진압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생들의 봉기도 민족의 보건을 내세우는, 위생을 해치는 성병보균율 몇 %라는 '놀라운 망국병' 등 당국의 공격적인 발표에 효율적으로 무력화됐다.[14] 1947년에 들어서면, 대신 천여 명의 여성절제회원들이 어린이날을 축복하는 기념에도 금주와 공창폐지를 외치며 시내 중요도로 시가 행진을 했음이 대대적으로 전해진다.[15] 이러한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움직임은 당대 공창폐지운동 측에서 잘 언급되지 않았다.

재현의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김말봉이 해방 후 처음으로 신문연재한 「가인

13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다중은 권력에 대항하는 역량을 극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는 주권의 변증법적 정립 과정에서 대중 역시도 국가의 토대에 두었던 스피노자와는 다소 결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고했다. 고원, 「대중이란 무엇인가: 홉스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 비교」, 『영국연구』 제16호, 영국사학회, 2006, 29-48쪽; 진태원, 「대중의 정치란 무엇인가?—다중의 정치학에 대한 스피노자주의적 비판」, 『철학논집』 제19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163-199쪽.

14 군정청 보건후생국의 성병검사는 사실 미군의 감염 가능성의 증가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1946년에는 당사자의 대대적인 반대로 1번밖에 실시되지 못했지만, 곧 50% 육박하는 보균자수에 이후로는 댄서, 연급, 접객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서 연 3회 정도로 검진을 시행됐다. 이임하,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영희, 2015, 270-289쪽.

15 「금주, 공창폐지를 절규 어제 절제회서 시가행진」, 『동아일보』, 1947.5.6

의 시장」(『부인신보』, 1947.7.1.-1948.5.8.)이 있다. 이 소설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의 위원장이었던 그가 독촉의 기관지급인 『부인신보』에 약 6개월 간 연재했던 것이었다.[16] 당대 공창제폐지운동의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 대중서사는 기생 오채옥에게 그 초점을 두지 않았다. 여기에서 공들여 서사화하는 것은 기생을 한 명의 간호사로 변신시키는 선한 여성들의 연대였다.[17] 그러나 법령 70호 인신매매 금지(1946.5.17)와 법률 제7호 공창폐지령 공표(1948.3.9) 사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모순과 혼란이 계속됐다.[18] 그리고 1948년 2월 14일, 드디어 공창폐지령이 발효될 때, 몇몇은 유곽을 떠나지 않고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의 마지막 결기에도 불구, 행정명령 16호로 유곽폐쇄 강제퇴거가 내려졌고, 남겨진 이들은 시영수용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방불명이 됐다고 한다.[19]

사실 김말봉의 소설이 보여줬듯, 섹슈얼리티의 교섭만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하층계급 여성들의 전략적 봉기들은 시대적 요청과 도덕적 명분에 의해 진압됐던 것이다. 이후 당사자의 이야기는 사창의 구렁텅이로 빠졌다는 등 비극으로만 전해졌다.[20] 그리고 1948년 초, 3·8선 이남의 단독선거 가능성이 가시화될수록 여성들의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마법과도 같은 사실이 우선 내세워졌다. 앞

16 폐업공창구제연맹은 10여개 부인단체(여자국민당, 애국부인동맹, 불교부인회, 천도교부인회,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부녀총동맹, 여자기독교청년회, 여자국민회, 한민당부인회, 여자청년단, 천주교여자청년회, 성병예방협회 등)로 발족했고, 이후 남산에 희망원을 세워 한 번에 약 2백여 명의 여성을 수용하여 직업보도, 결혼알선 등을 하기도 했다. 「여자국민당 등 14개부인단체가 폐업공창 구제연맹 결성」, 『동아일보』, 1946.8.11; 「희망원 갱생을 상징」, 『조선일보』, 1946.8.11; 「불행에 우는 여성에 온정」, 『조선일보』, 1946.9.8 등.

17 김말봉의 「가인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박사논문, 2015, 187-207쪽.

18 신정유곽에서 일하는 '창기' 800여명을 대표하는 이들이 부총을 방문해 악덕포주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중보』, 1946.2;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154-156쪽 재인용.

19 「私娼으로 전락? 축출 창기 전부가 행방불명」, 『조선일보』, 1948.3.31.

20 예를 들어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후, 상대의 트럭을 얻어타고 돌아가는 도중, 앞에 오는 MP차에 치어 허리가 부러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동행했던 김옥희는 (…) 꼭 이번 한번만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갱생의 길을 밟으려하였던 것이오만 죽었군요!" 「그 여자의 반생, 매춘하여 예금」, 『자유신문』, 1948.6.16.

으로 그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봉기 자체가 금기가 될 것이었다. 냉전의 징후로서 경직화한 3·8선 이남에서 대중정치의 열기는 그와 긴밀했던 좌파적 움직임과 더불어 단속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 파업 못지않게 미군정의 실정, 즉 심각한 식량문제에 대항하는 '부녀자들의 쌀배급 데모'가 상당했다. "젖먹이를 업은 채 부청으로 도청으로 진정의 거듭을 멈출 수가 없는" 여인에 대한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중 몇몇이 미군 MP가 휘두른 곤봉에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만이 단편적으로 부각될 뿐이었다.[21] 대중봉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여성들은 다음처럼 단신으로만 도착한다. 청운동의 박여사는 쌀을 증배하여 배급해달라고 동민의 서명까지 갖추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날인이 사실과 다르고 "쌀 증배가 바쁘지 선거가 뭐가 바쁘냐"는 문구를 썼다가 경찰 당국에 조사를 받았다.[22]

해방기 대중운동의 앙등기에 여성대중은 구체적으로 적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후적으로 전해지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조선공산당원이었다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났던 고준석의 『아리랑 고개의 여인』이 있다. 부제 '어느 조선 여성운동가를 회상하며'에서 보듯, 이 책은 자신이 아닌 '붉은 자켓의 여자'로 기억되는 부인 김사임을 그린다. 그와 함께 여성봉기의 순간은 다음처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여성들의 데모대는 서울시청 안으로 들어서자 곧바로 '농성'을 시작 (…) 더듬거리는 영어로써 서울시청사 복도를 가득 메운 군중을 배경으로 시장과 담판하여 밀가루 배급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때 미국인 시장은 집무실 밖의 여성군중의 위세에 눌린 나머지 아내의 성명·주소를 묻는 것을 잊어버렸다."[23]

---

21 「쌀 달라는 여인 부상, 혼잡 이룬 시청풍경」, 『서울신문』, 1946.4.2; 「사설 부녀자에 대한 폭행」, 『자유신문』, 1946.4.7.

22 결국 박여사는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6개월이나 징역을 받았다고 한다. 「쌀 增配 진정하던 박여사 軍裁 회부」, 『조선일보』, 1948.4.14; 「박여사에 6개월 軍裁서 징역 언도」, 『조선일보』, 1948.4.15.

23 김사임은 부녀동맹의 명륜·혜화동 세포로 당서울시의회의 부녀부에 속했다고 한다. 그는 부녀동맹의 하부조직 구축과 자연과학계의 간호원이나 의사·약사 여성들을 조직하는 일을 맡았으며, 부녀동맹 결성대회 때는 서기로 선출되기도 했다. 고준석은 당시 아내가 늘 자식을 업은 채 데모대 선두에 서있었고, 그 모습에서 가정주부가 참여하지 않은 집회나 데모는 의미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적고 있다. 고준석, 유경진 역, 『아리랑 고개의 여인』, 한울,

광장과 거리의 여성들은 해방기를 특징짓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과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해방기 역시 식민지 검열의 철폐로 잡지와 출판물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여성대중의 주장들은 잘 서사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당대의 지적은 좌파 쪽에서 먼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의 일원이었던 한효의 발언이 그랬다. 해방 후 신속히 나온 여성잡지 중 하나였던『여성공론』창간호에서, 그는「여성과 문학」이라는 제하로 억센 여성운동이 전개되는 이때 여성문학가는 먼저 여성운동가로 확고한 사상을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작가이기 이전에 무엇인가가 되어야한다는 충고는 완전한 작가로서 의심되는, 혹은 글쓰기 외 다른 기대가 부여되는 여성들에게만 향해진다.

그럼에도 탈/식민의 중층적 조건에서 해방기 여성작가들이 당대의 혁명적 여성대중을 다루지 못했음은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 이는 식민지 검열 장에서 금지된 정치를 보충하는 문화의 촉진에서 '여류문단' 역시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효는 그런 역사적 조건과 상관없이 여성작가를 향해 "사회적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단을 사교장으로 안다"고 호통친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편에 의도적으로 여성대중을 배치하는데, 이에 따라 1945년 9월 12일 "수천명의 여직공들이 때묻은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벗고 비를 맞으면서 행진하는 광경"이 소환된다. 그러나 이 행렬은 조선의 현 단계에서 아름답게 보아야할 '광경'으로만 말해질 뿐, 이들 "가장 순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선량한 여성대중"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는 적혀지지 않았다.[24]

이렇듯 해방초기 좌파 작가들은 혁명의 도화선에서 살펴지는 여성의 집단적 가능성을 낭만적으로 제시했다. 김영석의 단편소설「폭풍」은 한효가 언급했던 여성들의 행렬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서사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귀득을 중심

1987, 123-125쪽.

24 해방직후 한효는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을 결성했다. 잠시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1946년 2월 초 일찌감치 월북했다. 한효,「여성과 문학」,『여성공론』제1호, 여성공론사, 1946.1, 40-42쪽.

으로 한 “나 어린 여공은 참새들처럼 함께 몰려서 불안스런 얼굴을 하고 양쪽 거동을 살피는 것”이었지만, 곧 “여공들은 자기네가 언제나 함께 소리치면 아무리 세도가 당당한 공장장도 풀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大한勞총은 퍽力단이다! 우리는 끄까지 싸호쟈!”처럼 틀린 글자투성이의 삐라를 제 손으로 붙이게 된다. 그럼에도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들 여공들이 “원수스런 박래품”인 권총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바퀴 앞에 수십 명 엎치기 덮치기로 누운 모양으로 장식된다.

강조컨대 언어를 넘어서는 집단적 힘으로 여성대중을 그리는 것은 앞서 말한 권력에 대항하는 대중의 역량을 소환하기 위함이다. 김영석의 소설에서 여공들은 자신의 주장을 서툰 글자로만 전달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간절한 주장 자체가 아니라, 군집적인 양태를 최선의 저항으로 취함으로서만 드러내질 수 있다.[25] 이는 신인 황건이 『신천지』에 제출한 단편소설 「깃발」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주인공 건호는 ‘깃발의 바다’를 이룬 거리에서 “공장패인들성 싶은 여자만의 대열”을 마주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여동생을 발견하고, 자신도 다시 청년 농민과 함께 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26]

이렇듯 이 소설들은 대중운동의 필연성을 여성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여기에 여성들의 봉기 자체, 즉 구체적으로 이들 여성이 혁명에서 가지는 역할, 혹은 그들의 투쟁적 입지에 대한 관심은 누락된다. 실제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상당수는 이미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가장 먼저 파업이 발생한 사업장인 경성방직의 쟁의는 여성들이 이끌었다. 그럼에도 실제 싸우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환영보다 불안이 더 자주 투사된 듯하다. “도로가 모자라게 쏘다니는 여성들이 과연 나라를 위한 사회에 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 바쁜 걸음을 치고 있느냐”는 삐

25 김영석 역시 조선문학가동맹 문학대중화운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문필활동을 하다가, 1948년 이후 월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석, 「폭풍」, 『문학』 제2호, 조선문학가동맹, 1946.11, 106-143쪽.

26 황건은 함경 출신으로 해방 후 고향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그는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소설분과 위원장에 오르기도 한다. 황건, 「깃발」, 『신천지』 제2권 2호, 신천지사, 1946.6-7, 168-181쪽.

라가 가두에 뿌려졌다.[27] 그러니까 당연한 여성해방의 이상에는 동의하더라도 당장의 정치열에 들뜬 여성들에게는 적대를 숨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신문 하나 사보지 않기에 믿을 만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리 만무하다고 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창조해낼 지능을 남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똑같은 지위에서 협동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여성들이 '절름발이' 문화를 창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탄했는데, [28] 이는 탈/식민 민족/국가로의 전환에서 정상성의 주장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결국 대중의 역량은 어느 순간 통치 권력에 수렴돼야하기에, 가장 원초적인 힘으로서 여성봉기는 어떻게든 다스려져야할 것이었다.

이때 1948년 여름, 박화성이 발표한 「광풍 속에서」가 의미심장하게 눈에 들어온다. 식민지기 검열됐던 「헐어진 청년관」(『예술문화』 제4호, 1946.8)을 뒤늦게 게재하고, 단편집 『고향 없는 사람들』(중앙문화보급사, 1948)을 재발간한 것을 제외하고, 신작으로서는 단편 「봄안개」(『민성』, 1946)에 이어 처음 연재였다.[29] 노라 변형서사라 할 만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조영희는 나혜석이 작사했던 '인형의 집'을 노래하며 등장한다. 재색겸비의 요조숙녀였지만, 이제는 미쳐버린 그는 여성으로서 생존경쟁에는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그리고 헌법의 국회통과를 기념해 둘러앉은 입법의원들을 향해 모든 국민들이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이는 전략이기도 했는데, 첩의 딸이나 남편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고 기쁘게 쫓겨남으로써 광풍 속에서 다시 살겠다는 것이다.[30]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인 자각이 미친 여자의 목소리일 뿐, 사회적 주장으

27 이석동, 「여성에의 고언」, 『녹십자』 제1호, 녹십자사, 1946.1, 43-47쪽.

28 관련 언급은 김병환, 「조선여성에게 드리는 말」, 『학병』 제1호, 학병사, 1946.1; 강원길, 「여성의 해방」, 『혁진』 제1호, 혁진사, 1946.1; 이동규, 「여성과 문화」, 『여성공론』 제1호, 여성공론사, 1946.1. 등.

29 해방직후 박화성이 당장에 작품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알려진대로 집안 일 때문이 아니라,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있다.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의식」, 『박화성, 한국문학사를 관통하다』, 서정자·야마다 요시코·송명희 편저, 푸른사상, 2013, 172-199쪽.

30 박화성, 「광풍 속에서」, 『서울신문』, 1948.7.17-23.

로 접수되지는 않음을 꼬집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1946년 10월 항쟁 이후, 1948년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 그에 잇따른 봉기의 상황이 펼쳐졌다. 그럼에도 몇몇 작가들이 체제의 요청에 응답해 취재한 기사들을 제외하고, 당대 이 봉기의 순간을 의미있게 서사화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불과 몇 달 전, 조선문학가동맹이 기관지 『문학』에서 "인민항쟁특집호"(1947.2)를 구성할 수 있었던 때와 사뭇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31] 이때 『문화』(1947.7)의 '여류작가특집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류의 대작만을 한 자리에 골라 놓았다"는 이 지면에 해방 초의 정치적 활력은 자취가 없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먼저 좌파 쪽에서 부상했던 지하련과 이선희도 대표작 「창」(『서울신문』, 1946.6.27.~7.20)과 「도정」(『문학』, 1946.7) 후 별다른 작품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장덕조의 「창공」과 최정희의 「점례」, 그리고 임옥인의 「떠나는 날」은 차례대로 명망가의 부인, 하층계급 농촌여성, 그리고 고학력 여교원들을 초점화하고 있다.[32] 이 시기 가장 떠들썩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던 집합적 존재로서 여학생들이 당대 여성작가들의 재현대상에서는 빠져있음은 지적할만하다.[33] 1947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식에 참석했던 배화, 경기, 진명 등 시내 여고녀생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데모와 맹휴의 일상화'에서 이 여학생들도 단련이 되었기에, 기념식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퇴학 혹은 정학 처분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연일 이에 불응한다는 집단적인 항의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박순천은 "학원에서 미숙한 인간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잘못하면 어린애가 칼날에 묻은 꿀을 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단 '국운이 충

31 오직 10월 인민항쟁을 소재로 한 평론, 시, 소설만을 실었던 임시호이자 특집호였다. 소설로는 「산풍」(김현구), 「아버지」(황순원), 「방아쇠」(전명선), 「어머니」(박찬모) 5편이 실렸는데, 모두 남성 노동자, 남성 농민, 남성 징용피해자 등을 초점에 둔 작품이었다. 이렇듯 당대 사건을 선취적으로 투쟁사와 항쟁사 속에 기입하려는 서사적 전략에 대해서는 조은정, 「'10월항쟁'의 역사화 투쟁과 문학적 표상—조선문학가동맹의 1947년 위기 극복의 방법론」, 『한중인문학연구』 제46호, 한중인문학회, 2015, 47-72쪽.

32 '여류작가 특집호'에 실린 이 세 작품에 대해서는 류진희, 앞의 논문, 140-143쪽.

33 해방기 여학생 운동에 대해서는 김은경, 『학생문화사—해방에서 4월 혁명까지』, 서해문집, 2018, 103-115쪽.

천’할 때를 기다리라고 했다.[34] 그러나 이 발언에서 짐작되는 것은 오히려 여성대중으로서 이들 여학생들의 봉기가 얼마나 맹렬했는지이다. 당장 미군정청 학무국장 마틴 역시 여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의 분기탱천에 할 수 없이 이들을 모두 복교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야했다.[35] 그러나 곧 이러한 여학생을 둘러싼 ‘분규’와 관련된 소식보다 여학생들이 건국정신을 보여주는 자진 가두 청소를 했다는 ‘미담’ 보도가 더 자주 들리게 된다.[36]

손소희가 「가두에 서는 날」에서 일찍이 그렸듯, “생활 가두에서 자기의 주의를 배우고 또 내세울 것을 맹세”하자고 했다. 여기에 제 각각의 여성 대중운동들이 경합하며 봉기하던 가두(街頭)는 희미해진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정선은 대문 밖에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날려도 알 바 없을 집을 갈구하고 있다. 그는 이 시절에 “선생은 가르치지 않고 학생은 공부에 힘쓰지 않고 사무원과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 등의 ‘않고’ 만을 내세워 자기를 합리화”한다고 모두를 비판한다.[37] 여기에서 그의 목소리는 해방 후 몇 달 선생 노릇을 하다 좌우 사상전에 밀려난, 당장 자신의 치마까지 팔아치우게 하는 남편을 이해하는 데 할애된다. 정작 남편의 눈에 아내는 생활 전선으로 향하는 그에게 여전히 동화되지 못한 존재로 남겨져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봉기 서사를 대체하는 생활본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좌익계 소요에 가담한 여성들이 천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통계도 전해진다.[38] 남한

34 박순천, 「3·1기념일을 전후하야」, 『재건』 제1권 3호, 재건사, 1947.5.

35 「서울시 학무국 마틴고문, 퇴학 배화여중생 등 복교 지시」, 『경향신문』, 1947.5.11; 「퇴학생 복교, 진명여중서」, 『서울신문』, 1947.5.16; 「배화여중서는 50명이 수업거부」, 『자유신문』, 1947.5.16; 「퇴학생 복교 시키겟다 마-틴 씨 배화여교서 재차 언명」, 『자유신문』, 1947.6.4 등.

36 이는 여학생들 다루는 순치된 기획에 다름없는데, 이에 대해 대번에 우파 쪽에서는 “여성대회니 정치토의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실천적인 행동인지”, 건국에 앞서는 신여학생의 지성이라는 찬탄을 했다. 「건국 정신 여기에 있다. 숙명 여중생 자진 가두 청소」, 『조선일보』, 1947.11.8; 「내 거리 내 손으로 숙명여중생이 청소봉사」, 『경향신문』, 1947.11.8.

37 손소희, 「가두에 서는 날」, 『부인』 제2권 1호, 부인사, 1947.1; 구명숙 외 편, 『한국 여성문학 자료집 2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I 』, 역락, 2011, 191-203쪽 재인용.

38 해방 후 47년 말까지 남한 각지에서 좌익계 소요에 가담한 연인원은 402,800명으로, 그중 여자는 1,230여명이었다고 한다. 최영희 편, 『격동의 해방3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이라는 체제 안팎에서 차라리 이질적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이 날은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실행되는 감격의 총선거날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구국을 위한 단독정부를 결사저지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비합법 투쟁으로 나서고, 또 그 과정에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여성들도 있었다.[39] 그 후로도 전복음모의 혐의자로, 대규모 시위행진을 하고 수많은 삐라를 뿌리다 치안재판에 회부되는 여성들 소식도 간간이 전해졌다.[40] 예를 들어 이주경이 그러했는데, 그는 불과 18세의 나이에 단선(單選)에 반대하여 인천우체국 방화사건을 주동했다고 회자됐다.[41]

이제 여성들의 봉기는 이야기되지 않고, 사회주의자의 뒤를 잇는 빨치산의 재판 기록 혹은 전향간첩 수기 정도로 음각되어 전한다.[42] 관련해서 1949년 3월 김말봉이 『신여원』에 발표한 「낙엽과 함께」라는 단편도 의미심장하게 눈에 들어온다. 공창제폐지를 둘러싸고 여성만의 연대를 희망차게 그렸던 「가인의 시장」 이후, 그는 「성좌는 부른다」(『연합신문, 1949.1.23-29.)에서는 화류병자 소매치기 남성이 여성을 매개로 기독교적 갱생에 이르는 과정을 그렸다. 그 다음 작품이

1996, 460쪽.

39 「전북 폭동사건 관련 고창여중생 20여 명 검거」, 『서울신문』, 1948.4.3.; 「200여 여학생 피검」, 『경향신문』, 1948.6.20.

40 「여학생 등 35명 종로署에서 검거」, 『조선일보』, 1948.8.19; 「여학생이 주동. 進永에 대규모 데모와 봉화」, 『조선일보』, 1948.8.19; 「지하선거여학생 최고 29일 구류」, 『자유신문』, 1948.8.21.

41 당시 인천여자경찰서에 구금된 여자들 중 태반은 정치범이었다고 하고, 이주경이 선솔하여 일제히 단식을 실행하면서 남북 통일정부 수립, 무조건 체포반대, 미결범 급속 판결, 고문폐지 등을 외쳤다고 했다. 「女警, 유치장서 단식소동」, 『서울신문』, 1948.8.22. 이주경은 마산 출생의 대구 방직공장 오르그 출신으로, 애초에 인천우체국 방화 당일 다른 남자대원들과 행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아 단독 실행하였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국 전쟁 때 북으로 넘어갔다고 전해진다. 관련해서는 이승희, 앞의 책, 140쪽, 175쪽.

42 예를 들어 전향 남파간첩 소정자는 1권의 수기를 남겼는데, 여기에 해방 후 좌파의 승기 속에서 자신 역시 공산당 활동에 전념하게 된 정황이 그려져있다. 그는 공산당이 조직된 후 정치적 손길이 자신에게 뻗쳐졌고, 먼저 진주시당에서 일하게 됐을 때보다 남로당 개칭 후 여성당원이 더 많아졌다고 회고했다. 관련해서는 소정자, 『내가 반역자냐』, 방아문화사, 1966, 26-29쪽.

「낙엽과 함께」였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돌순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된다. 전쟁의 기운이 짙어진 이즈음, 돌순의 주위에는 병 든 어머니와 살림을 봐주는 돌쇠 어머니 외, 교류하는 다른 여성은 없다. 그는 현재 이북에서 게릴라 무장투쟁을 지휘하는 오빠 근배를 따라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회의를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 가서 중등학교도 잇해 동안 다녔"(118)지만 "무슨 스트라익인가 어느 선생 쫓아내는데 가담을 했던"(118) 돌순은 현재 3·8선 북단의 고향마을에 은거 중이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남한의 미남자 창호에게 끌리고 있다.[43] 돌순은 창호에게 "빨갱이 친구 더러 가졌어요?"(120)라고 당돌히 묻지만, "돌순 씨 빨갱이 사상을 지지하십니까? 그럴 리는 물론 없겠죠? 돌순 씨가 조선사람이라면"(121)이라는 그의 말에 주춤한다. "소수의 착취계급과 싸워야 된다는 게 붉은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121) 주장해보지만, 곧 "전 본래 이론투쟁은 할 줄 몰라요"(121)라고 물러난다. 결국 돌순은 남북협상이 아니라 일단 건국을 주장하는 창호에게 "정말로 양심적 애국자십니다"(122)고 감복한다.

그리고 학원투쟁에 맹렬히 임했던 여학생 돌순은, 결국 오빠와 애인이 서로 죽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인상적인 것은 남북 남성으로 설정된 민족의 알레고리를 이어붙일 역할 정도로 여성을 등장시키면서도, 기어코 그의 이력을 적어두는 점이다. "피비린내 나는 조국의 현시 앞에 나는 한 개의 마른 낙엽"으로 한톨 비료가 되겠다는 선언은, 사실 모든 역사가 "낙엽과 함께" 이뤄졌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돌출적이라고 할만한 "오빠만 죽이지 말어 주십시오. 당신도 오빠 손에 죽지 말어주세요"(126)라는 유서는 그저 그날 하루의 전투만을 중지하게 했을 뿐이었다.[44] 그러니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전해진 것은 홀로 떨어진 한 개의 낙엽도 사실은 여성대중이라는 큰 나무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

43 인용은 『한국여성문학자료집 2 해방기 여성단편소설 I 』(구명숙 외 편, 역락, 2011)에서 했다. 쪽수는 괄호로 표시한다.

44 전후 김말봉은 냉전체제 하의 반공작가로 본격적인 행로를 밟아나가는데, 공산진영과 싸우는 문화전사로서 가부장제 국가의 여성국민이라는 입지를 주장하게 된다고 했다. 관련 논의는 김경연, 「'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해방/전쟁기 여성작가 김말봉의 행로와 문화냉전의 젠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제68호, 한민족문화학회, 2019.12, 165-224쪽.

실이지 않을까.

4 나가며

다시 모두의 안미생과 고명자로 돌아가자. 이들은 각기 다른 이념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여성에 대해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짧은 순간을 그려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박화성과 김말봉의 여성주인공 영희와 돌순은 결코 마주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졌다. 이 곤혹을 응시하면, '지금-여기' 탈/식민 민주주의의 여정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개입할지 사유해볼 수도 있을 듯하다. 분명 여성 역시도 3·8선 이남의 민주주의의 전개에서 반복된 혁명, 운동, 항쟁 등에 참여해왔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봉기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남겨지거나, 의미있는 인물로 서사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촛불혁명' 과정에서 여성대중의 명멸에 대한 실제적 감각이 동세대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 많은 광장과 거리의 여성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다시 질문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우선 여성들의 봉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해방의 순간을 최대한 재구하는 동시에, 그 부재하는 재현을 탈/식민의 효과로 심문하려고 했다. 강조컨대 해방기는 전례 없는 여성대중의 대대적인 부상과 그에 대한 재현이 활발하기도 했다. 그러는 한편 여성봉기가 드러난 서사들이 급속히 사그라들던 때이기도 했다.

이 이중의 과정에 여성들 역시도 활발히 개입되어 있었다. 이 글은 탈/식민 후과에서 여성은 어떤 민족/국가의 일원이 되고자 했는지, 혹은 그 너머의 존재로 어떻게 스스로를 위치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듯 중첩되는 모순과 반복되는 고난에서도 거듭 다시 집단적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라는 존재의 역사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여성대중의 부상과 여성봉기의 순간이 교차할 때, 어떤 공인된 여성계보가 생성되는지 그 이면을 짐작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새한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와 『녹십자』, 『민성』, 『백민』, 『신천지』, 『여성공론』, 『인민』, 『재건』, 『학병』, 『혁진』 등 해방기의 신문과 잡지.

구명숙 외 편, 『한국 여성문학 자료집 2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Ⅰ』, 역락, 2011, 114-128, 190-203쪽.

김말봉, 「가인의 시장」, 『부인신보』, 1947.7.1.-1948.5.8.

_____, 「낙엽과 함께」, 『신여원』, 1949.3.

박화성, 「광풍 속에서」, 『서울신문』, 1948.7.17.-23.

_____, 「성좌는 부른다」, 『연합신문』, 1949.1.23.-29.

소정자, 『내가 반역자냐』, 방아문화사, 1966, 26-29쪽.

최영희 편, 『격동의 해방3년』,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8, 32, 460쪽.

단행본

김은경, 『학생문화사—해방에서 4월 혁명까지』, 서해문집, 2018, 103-115쪽.

류진희, 「해방기 여성작가들의 문학적 선택」,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오혜진 외, 민음사, 92-111쪽.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의식」, 『박화성, 한국문학사를 관통하다』, 서정자·야마다 요시코·송명희 편저, 푸른사상, 2013, 172-199쪽.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140-156쪽.

이임하, 『조선의 페미니스트』, 철수와영희, 2019, 179-214쪽.

_____,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영희, 2015, 270-289쪽.

논문

고 원, 「대중이란 무엇인가: 홉스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 비교」, 『영국연구』 제16호, 영국사학회, 2006, 29-48쪽.

김경연, 「'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해방/전쟁기 여성작가 김말봉의 행로와 문화냉전의 젠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제68권, 한민족문화학회, 2019.12, 165-224쪽.

김주리, 「해방기의 변화와 여성 교양인의 운명—김남천의 연작소설 〈사랑의 수족관〉과 〈1945년 8.15〉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6, 169-195쪽.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박사논문, 2015, 187-207쪽.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1988, 32-136쪽.

박지영, 「여성 혁명가의 귀환, 그 이후—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상과 가족서사」,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12, 181-223쪽.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4, 64-90쪽.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제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12, 521-548쪽.

양동숙, 「해방 후 우익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연구(1945~50)」,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0, 24-164쪽.

이성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고명자의 생애와 활동」, 『인문학연구』 제84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247-274쪽.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1991, 58-129쪽.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연구』 제47호, 반교어문학회, 2017.12, 247-284쪽.

조은정, 「'10월항쟁'의 역사화 투쟁과 문학적 표상—조선문학가동맹의 1947년 위기 극복의 방법론」, 『한중인문학연구』 제46호, 한중인문학회, 2015, 47-72쪽.

진태원, 「대중의 정치란 무엇인가?—다중의 정치학에 대한 스피노자주의적 비판」, 『철학논집』 제19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163-199쪽.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 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6, 267-292쪽.

Abstract

The Rise of the Women's Masses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Women's Uprising in the Liberation Period

Ryu Jinhee

Women have appeared in large numbers in the plazas and streets of the liberation period in Korea. However, these women and women's uprisings were not represented. This article tries to think of this gap historically and culturally. First, I tried to get the best of the moment when women gathered as a group in this spiral of liberation, whe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American military regime crossed. Next, I analyzed the narrative of women's uprisings. In the process of postcolonial nation-building, women exist only as groups and cannot speak as of their voice. Neither did female writers strategically adopt what women's masses were revolutionary.

However, the women's masses and women's writer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lso had to follow the urgent political situation on the left and right. Not long after liberation, the gap between the left and right women has exploded. Furthermore, the strike of 'kisaeng's was not reported favorably, and the demonstration of women for the rice distribution was imprinted as a disturbance of the Red Socialists. In short, the women's uprising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narratives surrounding these women allow us to see the paradox of the mass's movement in postcolonial situations.

Key words: The Liberation Period, Women's Mass, Women's Narrative, Uprising, US Military Regime, Square, Street

본 논문은 2020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